

유품으로 본 성철스님 청빈과 구도열정

성철스님 탄생 1백주년 기념
유품 및 사진 전시회 개막

성철 스님(1912~1993·사진)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의 전시회 등이 마련됐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축전 주제관인 대장경전년관에서 10월 28일까지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일대기 특별전, 해인사 100년 전 모습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지난해 열린 대장경전년 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의 하나로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기획했다.

'100년의 궤적, 살아있는 지혜를 만나다'란 주제의 이번 행사에서는 성철 스님의 유품 및 사진 60점, 스님의 생애와 대비식 동영상 상영, 해인사 100년 전 모습 사진 40점, 2011 축전 기록·사진 60점 등을 볼 수 있다.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에는 스님이 쓰시던 각종 유품과 낡은 누더기, 손수기운 덧바신, 검은 고무신, 글씨 등이 전시돼 스님의 청빈하고 구도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1935년 지리산 대원사에서 거사로 수행하다 출가했다. 이후 국내 유명 사찰 등에서 안거하고, 1981년 조계종 제7대 중정으



사진왼쪽부터 청담·향곡·성철 스님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성철 스님이 평소 입고 다녔던 승복과 신발 등 유품

10월28일까지 대장경전년관에서 열려
유품 60점과 해인사 기록물도 전시

로 추대됐다. 스님은 종정 추대식에 참여하는 대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기기도 했다. 대장경조직위는 한국 불교의 산실로 널리 알려진 천년고찰 해인사 100년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선보인다.

해인사는 미국 CNN 방송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볼 만한 곳 13번째로 선정될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성철 스님의 생애인원택 스님은 "수행자로 일생을 사셨던 스님의 면목들이 많은 사람의 신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전시전은 조선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가야산 단풍과 흥류동 소리같이 함께 어우러져 잔잔한 기

쁨을 선사한다"며 "수행자로 일생을 사셨던 성철 스님의 면목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축전 주제관인 대장경전년관에서 9월 26일 열린 개막식에는 윤상기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하창환 합천군수, 선해 해인사 주지스님,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강렬한 붓 터치로 내면의 마음 표현

추상화가 장영주 개인전

강렬한 색채가 화면 위에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에너지를 뿜어내는 작품을 선보여온 추상화가 장영주가 10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화려한 색상을 사용해 거침없는 붓질로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를 캔버스 위에 담아낸다.

천상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찬란한 광경을 표현한 '하늘의 영광', 푸른 숲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붓질로 그려낸 '신록',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린 '사랑으로' 등에서는 작가의 내면에 에너지가 물씬 느껴진다. 장 작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는 "나는 붓을 잡은 시간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에 담긴 생각을 오랫동안 품는 시간이 더 길다. 추상표현이 결국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 200호 크기의



강렬한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인 '열망'

10월 9일까지 신작 30여 점 전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서

대작 위주로 지난 3년간 작업한 신작 30여 점을 내놓았다.

미술평론가 서성록씨는 "그의 그림은 '살아있음에 대한 추구' 넘어 생애의 기쁨과 희열에 충만해 있다. 절련과 벽잠이 안 품는 시간이 더 길다. 추상표현이 결국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02)399-1114~6. 정혜숙 기자

선지식들의 경구 일필휘지에 답하

서예가 양상철 초청전시회 열려
10월 8일부터 한국불교전승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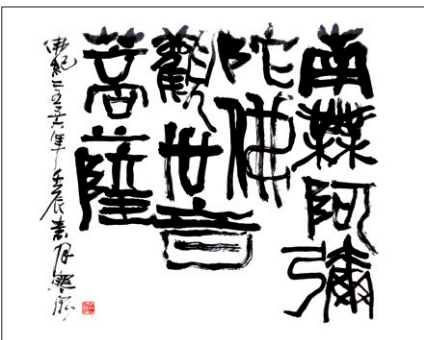
서예가 양상철 선생의 서예초대전이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국불교전승관 문화전승관에서 열린다.

'선사의 향기'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에는 8m 급강경 10폭 병풍과 초서반야심경 병풍, '나무아미타불' '관음' '대광명' 등 50여점이 벽에 걸린다.

한국서가협회초대작가인 양상철 작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2005년부터 6년에 걸쳐 4회씩이나 초대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은 누리에 벽이 없고/사면에는 문이 없네/부처와 조사 조차도 올 수 없는 곳/흰 구름에 누워 한가로이 잡이나 자리"를 내용으로 하는 '壽庵(증암)'은 초서 특유의 휘갈리는 맛을 잘 살려 한자위에 옮겼다. 정배열로 가지런히 꼼꼼하게 급강경을 사경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을 보면 수행자가 쓴 것처럼 곳곳에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無枝無葉樹(무지무엽수)'로 시작되는



양상철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古林(고림)'에서는 큼직큼직하게 쓴 글씨 사이로 작가의 큰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제주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덕암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은) "양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 서예기법을 고수하면서도 개성적이고 예술성이 높아 이번 덕암스님 탄신 1백주년을 기념하는 서예전에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상철 작가도 "한획 한획 종이위에 일필휘지로 펼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작업했다"고 그간 작품 준비하며 겪은 고된 과정의 소회를 털어냈다. (02)732-2710 김주일 기자

"조선 기록문화의 꽃, 의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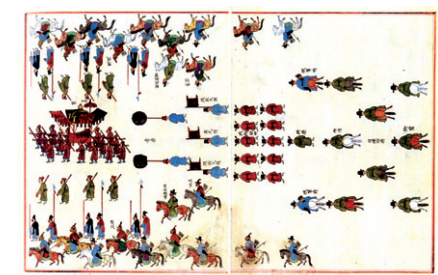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9월 25일~11월 25일

조선왕실 의례가 분한 전주를 찾았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광동석)은 외규장각 의례의 귀환을 기념하는 특별전 '조선왕실의 위엄, 외규장각 의례'를 9월 25일~11월 25일 개최한다.

2011년 프랑스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례는 총 297책으로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된 어람용(御覽用)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의례의 개념과 내용, 외규장각 의례의 특징 그리고 의례에 담긴 조선왕실의 의례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조선 왕실의 분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와 영조가 주도했던 의례에 관련된 의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례와 관련된 궁중회화, 인장(印章) 제기(祭器) 등 조선 왕실의 유물도 전시돼 조선 왕실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부 '조선 기록문화의 꽃, 의례(儀軌)'는 외규장각 의례의 역사적 배경과 어람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례

용 의례의 특징 그리고 의례의 제작 과정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부 '의례로 보는 조선 왕실의 의례(儀禮)'는 책례, 혼례, 장례 등 왕실의 주요 의례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다룬다. 3부 '의례로 보는 영조의 일생과 조선왕실'은 왕실의 조상과 왕실 어른의 위상을 높이고, 국정을 직접 운영하는 영조의 정책이 반영된 의례가 포함되어 있다.

전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조선왕실 의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외규장각 의례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가서는 조선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어린왕자 힐링메시지로 태어나

대만 작곡가 하진진 영감 표현

"어린왕자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과 같았다. 누가 나더러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린왕자)를 선택 고르겠다"

법정스님께서 생전에 찬사를 보내셨듯이 (어린왕자)는 우리들에게 삶의 경구와 같은 명작이다. 성경책 다음으로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생텍쥐페리의 명저 (어린왕자)가 감동과 영감의 음악적 언어로 태어났다. '어린왕자와의 조우'는 우리들에게 삶의 경구와 같이 진정한 성찰과 힐링을 주는 음악동화 판지 같은 앨범이다. 원작의 묵직한 철학적 담론을 음악동화처럼 그려내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락 위블 악기 등의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보컬, 일러스트 환타지 스토리북이 시청각적인 효과와 감동을 더욱 더 배가시킨다.

이 앨범은 버클리 음대 출신으로 대만의 떠오르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하진진(Chen-Chen Ho)이 (어린왕자)에서 받은 음악적 영감을 표현했다. 하진진은 비유, 은유와 상징, 역설과 반어법으로 쓰여진 원작의 묵직한 철학적 담론을 음악동화처럼 풀어내고 있다.



'The Fantasy of the Painting Brush'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어린이의 순수함과

상상력을 잃어버린 어른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반추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호밍곡이다. 'Sad Desert(슬픈 사막)'은 서로를 길들이며 관계를 맺었던 오만하지만 그 약하고 순진한 장미꽃을 책임지기 위해 지구에 처음 도착한 사막에서 자신의 별로 떠난 어린왕자와 슬픈 사막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 타이틀곡 돋보이는 트랙이다.

한편, 하진진은 대만출신으로 떠오르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로 버클리 음대에서 학사학위와 1등상으로 퀸스 존스상(Quincy Jones Award)을 수상했으며 재즈작곡 석사학위를 받았다. 음반뿐만 아니라 TV광고음악과 대만의 TTV, CTV 방송곡 등의 TV드라마 음악을 작곡했다. 주요 앨범으로는 2004년도 데뷔 앨범 'Three Cat Cookies'와 'All The Best In Memories' 등이 있다.

정혜숙 기자 bjwjs@hyunbul.com

연꽃과 LED조명과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소재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커져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물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led)
제휴쇼핑몰 불교TV(bin mall) / 사찰물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